

# 아빠의 봄

세종 두루초등학교

6학년 오수현

“오늘은 어떤가?”

매일 아침 아빠는 창밖 하늘을 한번 보고, 다시 스마트 폰으로 날씨를 확인 하신다.

언제 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매일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겨 주신다.

봄날은 이제 예전의 봄이 아니라고 하신다.

예전의 봄?

아빠의 봄은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의 봄 보다 좋았던 것이 분명한데, 나는 아빠의 봄을

알지 못한다. 참 궁금하기는 하다. 아빠의 그 따뜻하고 언제나 맑았던 봄은 어땠을까?

하늘은 그 파랑이 물감처럼 뚜렷하고, 창 너머 먼 산은 그 초록이 바로 눈앞에 가까이

있듯 하다 하셨다. 아빠는 옅은 파랑과, 짙은 초록을,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언제부터인가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아쉽고 또 무섭다고 하셨다.

난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서워 할 것 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아빠~~ 미세먼지가 많아 하늘이 조금 뿌옇다고 무서워 할 것 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빠는 그렇지 않다면서 설명을 해 주셨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정말 작은 먼지란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무섭고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세 먼지란다.”

사람의 폐 속 까지 깊숙하게 들어와서 기관지와 폐에 조금씩 쌓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면서 결국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 뜨려 아프게 만든다고 하셨다. 또 하늘에 떠다니면서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광합성, 호흡작용과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다. 결국 식물도 병이 걸려 죽게 되고, 그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도 점점 죽게 되고, 그 초식 동물을 먹이로 삼는 육식 동물도 죽게 되고. 이 작은 먼지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정말 아빠 말을 듣게 되니, 잘 보이지도 않고, 정말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같았다. 그렇다면 이 작은 악당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다. 나라에서 많은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라고 하셨다. 아빠도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시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신다. 미세먼지는 공장에서 많이 나오기도, 석유에서 나오는 기름을 태우는 차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전기 차나 수소 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공장을 친환경, 태양열이나, 수력, 풍력 등의 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내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실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다. 어른들처럼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하고, 아빠처럼 자동차를 운전하지도 않는데, 나는 미세먼지를 만들지도 않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정리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 또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일반 쓰레기로 마구잡이로 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땅에 묻히고 어떤 경우에는 태우게 되는데, 그 태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엄청 나온다고 하셨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잘 정리하고 구분해서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나무심고 잘 가꾸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숲이 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생각해보

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숲에서는 좋은 공기가 많았던 것 같다. 정말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일들이다. 이 어렵지 않은 일들을 실천하면 언제 가는 지금의 봄이 아닌 아빠의 봄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빠가 그리워하는 매일 매일 맑고 맑은 그 봄을 보고 싶다.